

■ 주요 뉴스: 미국 라자몬드 연은 총재, 금리인상 강조, 고용지표는 견조한 노동시장 재확인

- 미국 정부, 중국 첨단기업 투자 억제를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
- 독일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개월래 최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시각 확산
- 영란은행 총재, 영국의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우려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상 지속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9%], 달러화 약세[-0.2%],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 및 산업관련주 강세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다음 주 1월 소비자물가 발표 경계감, 경기둔화 우려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0.3% 상승, 엔화는 0.1%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이 배경
독일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등으로 6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63.9원, +3.5원) 0.4% 상승, 한국 CDS 하락

주요지수					주요금리				
		2/9일	2/8일	전일대비			2/9일	2/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81.5	4,117.9	-0.88%	국채금리 10y	미국	3.66%	3.61%	5bp
	유럽	462.31	459.46	0.62%		독일	2.30%	2.36%	-6bp
	중국	3,270.4	3,232.1	1.18%		영국	3.29%	3.31%	-2bp
	일본	27,584	27,606	-0.08%	CDS 5y	한국	41bp	42bp	-1bp
	한국	2,481.5	2,483.6	-0.09%		중국	59bp	57bp	2bp
환율	달러지수	103.22	103.41	-0.18%	위험지표	EMBI+	-	378	-
	유로화	1.0740	1.0712	0.26%		VIX	20.71	19.63	5.50%
	엔화	131.59	131.40	-0.14%		WTI유	78.06	78.47	-0.52%
	위안화	6.7864	6.7921	0.08%	원자재	구리	406.8	403.6	0.81%
	원화	1,260.4	1,260.1	-0.02%		금	1,861.8	1,875.5	-0.7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리치몬드 연은 총재, 금리인상 강조. 고용지표는 건조한 노동시장 재확인

- 바킨 총재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나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고, 노동시장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발언. 최근 긍정적 결과를 나타낸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의 지속 여부를 알 수 없기에,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
- 가장 주목하는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 움직임인데,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는 일부 제조업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왜곡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 다만 통화긴축 노력이 성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추가 금리인상은 보다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 2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전주에 비해 증가(18.3만건→19.6만건). 다만 장기 측면에서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에 노동시장 내 수요가 많음을 시사. 한편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건조함이 확인될수록 연준의 금리인상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FWDBONDS)
- JPMorgan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역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 선포는 시기상조이며,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5%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 다만 현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5%로 올린 이후에 한동안 관망한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 전망이라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정부, 중국 첨단기업 투자 억제를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

-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 군사 부문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 관련 투자 규제 방안을 고려. 아직 관련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를 완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

■ 미국 온라인 제품 물가, 전년동월비 1% 하락. 인플레이션 완화 지속을 시사

- Adobe의 디지털물가지수(DPI)는 전년동월비 1% 하락하며 5개월 연속 내림세.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경쟁 심화 및 소비 둔화 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Adobe의 Patrick Brown)

■ 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단호한 조치에 나설 필요

- 나겔 총재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호한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 시장에서는 '25년이 되어서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연율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독일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개월래 최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시각 확산

- 1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9.2%로 전월(9.6%) 대비 하락. 이번 결과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이 크기에 이와 관련된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 다만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ECB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ING)이 많은 편

■ 영란은행 총재, 영국의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우려

- 베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언급. 인플레이션의 큰 폭 하락을 기대하지만 이러한 전망 관련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고 첨언. 한편 통화긴축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평가

■ 중국 인민은행, 금년 2/4분기 금리인하에 나설 소지

- 평안증권의 종정성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인민은행이 2/4분기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평가. 한편 금년 중반 혹은 4/4분기에는 지급준비율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S&P, 일본은행이 금리상승 용인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우려

- 일본은행이 금리상승을 용인한다면 비용 증가에 따른 충격 등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특히 비용 증가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10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월러 이사 및 ECB 슈나벨 이사 강연
- 미국 미시건대 2월 소비자심리지수 및 5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 영국 '22년 4/4분기 성장률, 중국 1월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연준, 경기 연착륙을 준비해야 할 시점 - WSJ

(The Fed Now Has a Good Chance at a Soft Economic Landing)

- 연준은 2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거론. 그러나 작년 상반기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1%를 나타낸 것과 달리, 작년 하반기에는 1.9%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
- 일각에서는 필립스곡선에 근거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 그러나 '22.3월 연준이 긴축을 시작했을 때 실업률은 3.6%였으며, 현재 실업률은 3.4%로 오히려 하락
- 지금은 과도한 금리인상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며, 최소한 '만장일치'로 금리인상을 결정하기 보다는 매파와 비둘기파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판단

■ 글로벌 금리 행방, 고령화가 하방 요인이라는 인식 재고할 필요 - 블룸버그

(We're Probably All Wrong About Interest Rates)

- 주요 중앙은행 등 글로벌 경제주체들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 이는 고령층의 은퇴를 대비한 저축 증가 및 생산성 둔화에 따른 자본이익률 하락 등에 기인
-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고령층의 은퇴 대비 저축은 불충분한 수준. 오히려 기술의 발전 등으로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소지. 또한 향후 정부의 고령층을 위한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자금 확보를 위한 채권발행 증가로 이어져 금리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

■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 청년층 흡수 확대 등의 대응 마련이 중요 - 블룸버그

(Comeback in Factory Jobs Appears to Be for Real)

-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까지 전체 일자리에서 제조업 비중은 30%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 지속 감소하여 현재는 8.4%에 불과. 하지만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1월의 경우 1300만개에 근접하며 '08년 11월 이후 최고치).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본국 내 일자리 회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용 확대
- 다만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55세 이상이 24.6%를 차지. 제조업은 수십년간 인력감축 등으로 고령층 노동자 비중이 늘어난 상황. 제조업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취업요건 완화를 통한 고졸 노동자 흡수 등이 필요

■ **인도 아다니 그룹, 투기위험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 필요 - 블룸버그**

(What Distressed Hedge Funds Want From Gautam Adani)

- 아다니 사태 이후 연기금 등 기존 투자자는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반면 헤지펀드의 유입은 증가. 이에 따라 과거 Fuson, SoftBank 등이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 먼저 기존에 발행했던 역외 달러채 회수를 통한 신용전망 개선이 요구
- 아울러 부채 및 상환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잉여자산 매각을 통한 대출 상환과 보유자산의 질을 제고시킬 필요. 또한 국내은행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대출원 다각화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

■ **미국, 성장·고용의 제한적 둔화를 동반한 완만한 경기침체가 진행 중일 소지 - 블룸버그**

(Forget Hard or Soft Landing: Meet the Rolling Recession)

■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범용화 추진, 거래량 부족 등의 난관이 존재 - Financial Times**

(Five hurdles to mint a CB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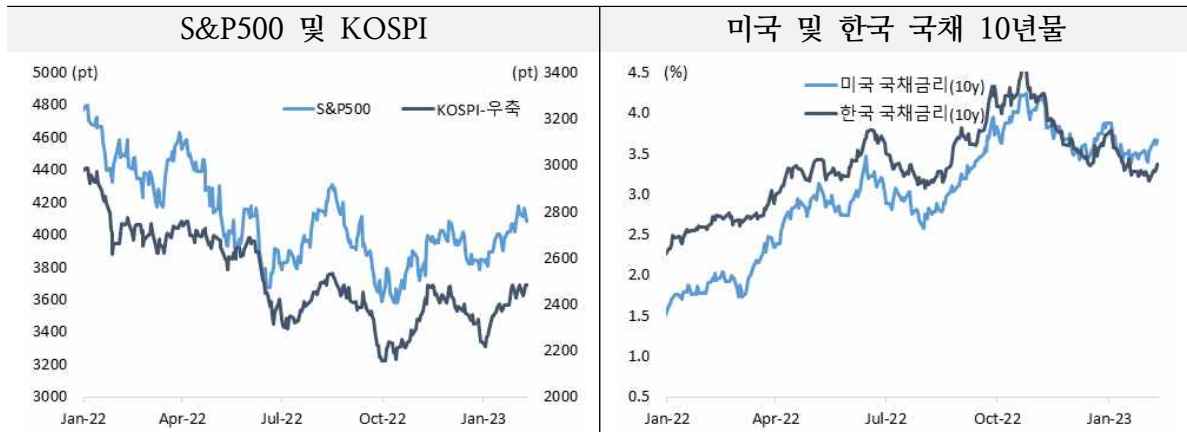
■ **일본은행, 차기 총재 임명 후에도 정책전환은 점진적일 가능성 - 블룸버그**

(That Bird Won't Fly: There's No Hawk Coming to the BO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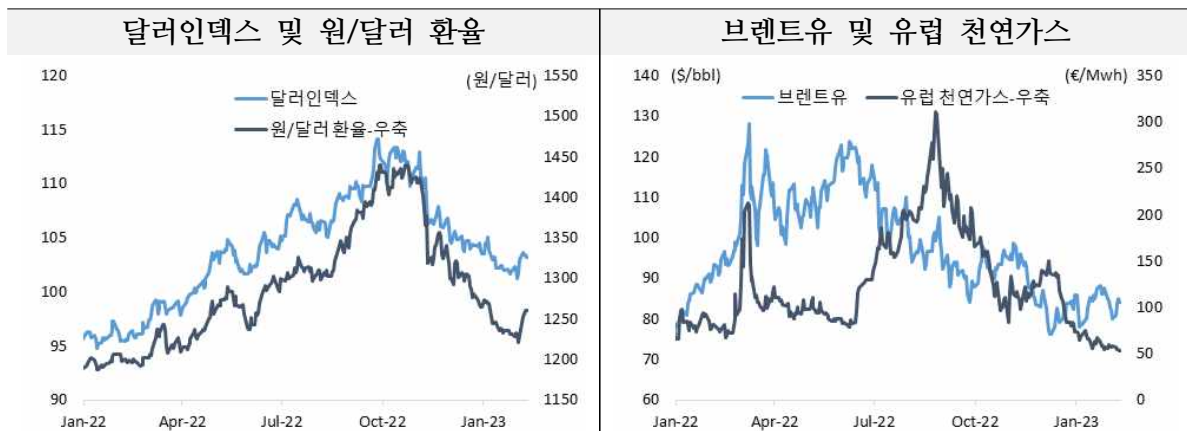
■ **영국의 성장 촉진, 투자확대·기업혁신·무역규제 완화 등이 관건 - Financial Times**

(Bold (but not crazy) solutions to Britain's growth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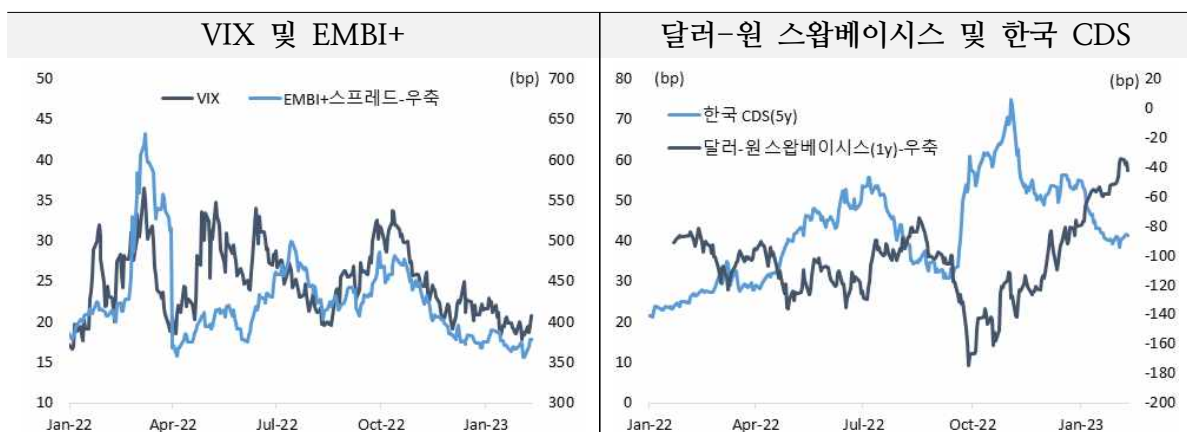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